



## 07

### 통일교육

제1절 통일 미래를 향한 통일교육

제2절 통일교육과정 운영

제3절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지원

제4절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제7장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헌법 정신에 따라 1999년 2월에 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통일교육 지원법」은 제2조에서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 제1항은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미래지향적 통일관」은 단순한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민족공동체의 발전과 도약에 기여하는 밝은 통일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고, 「건전한 안보관」은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물질적·정신적 가치를 지키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며, 「균형있는 북한관」은 북한 사회 실상을 어느 일면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세 가지 기본방향을 균형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전 국민의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제1절 통일 미래를 향한 통일교육

### 1. 통일교육 추진체계 강화

정부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2011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 통일교육기본계획」은 중점 추진과제로 ① 통일안보교육 강화 ② 통일준비 공론화 확산 ③ 미래세대 통일교육 다양화·활성화 ④ 새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 개발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1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2010년 지침서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통일교육 목표와 주안점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변화된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 등을 내용에 반영하였다.

특히, 2010년까지 일반용과 학교용으로 발간하던 「통일교육지침서」를 2011년에는 학교용을 초·중·고등학교용 3종으로 나누어 일반용과 함께 총 4종으로 발간하였다. 또한 발간 부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총 10만 부를 보급하였다.





한편, 2011년은 통일교육원 개원 40년을 맞이하는 해로 통일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그동안의 통일교육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1년 7월 6일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통일교육위원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통일교육 현황과 활성화 과제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하고 건설적인 제안이 제기되었고 참가자 간에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통일교육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 발전 심포지엄(2011년 7월 6일)

## 2.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통일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언론,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계각층 고객과 함께 통일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만남의 장으로 「통일대화의 광장」을 개최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 학교 교육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견고히 갖추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업무협의를 강화해 나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교과부와 차관급을 포함한 각급 업무협약, 시·도부교육감회의,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사)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학교통일교육 추진방향을 협의하였다.

2011년에 시·도교육청과는 두 차례에 걸친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통일교육 실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2010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시·도 교육연수원장 워크숍을, 2011년 4월 20일부터 21일에는 전국 학생수련원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국 16개 시·도 교육연수원 및 23개 학생수련원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통일교육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1년 7월 20일에는 18만여 명의 교원들로 구성된 전국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통일교육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통일부-한국교총 업무협약 내용

1.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및 학생 현장체험 확대
2. 학교통일교육 및 교원 연수 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협조
3. 학교통일교육 강좌 및 세미나 등 관련 행사의 공동 개최
4. 학교통일교육 관련 학술 정보의 교환·교류
5. 우수교육사례 및 강의안 등의 모집·확산
6. 기타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추진



통일부-한국교총 업무협약 체결

한편, 통일교육원은 2011년 2월 1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행정연수원과 '통일 안보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통일교육원 교수, 교육자료 등을 지방행정연수원에 제공하는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통일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 업무협약 체결

한편, 2011년에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3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9월 광주광역시, 10월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노력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1년 10월 통일교육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제공하였으며, 시·도 관계자와의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지자체가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제2절 통일교육과정 운영

통일교육과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연중 진행되는 '초청교육'과 해외 동포

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순회교육'이 있고, 온라인으로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사이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1. 초청교육

정부는 각종 사회단체 임원·회원 등 사회지도층인사, 초·중등교원 및 교장·교감·장학사 등 교육관계자,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정부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 등이 참여하는 1년 장기과정인 통일미래지도자과정과 통일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도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총 128회 6,691명(연인원 2만 5,619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과정은 ① 학교통일교육과정 ② 공무원통일교육과정 ③ 사회통일교육과정 ④ 통일미래지도자과정 ⑤ 통일교육전문과정 등 5개 전문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었으며,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북한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기초하였다. 나아가 최근 남북관계 상황변화를 반영한 건전한 안보의식 형성과 통일 미래 비전의 제시를 통한 긍정적인 통일의식 형성에도 역점을 두었다.

학교통일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연구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청소년 등 14개 과정(53회)에 총 3,128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실상과 북한 핵문제, 안보환경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과정을 운영하였다.



공무원통일교육과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및 실무 공무원, 정훈장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자,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경기도 공무원 및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과정교육생(위탁과정), 신규임용 수습사무관 등 1,405명을 대상으로 13개 과정(23회)을 실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과정은 통일교육 관련 기관·단체 회원을 비롯하여 여성·종교계 인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봉사자 등 각 지역사회와 직능단체의 여론주도층 인사 등 1,891명을 대상으로 12개 과정(45회)을 실시하였다. 특히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기초자치단체의원 등 각계의 여론주도층도 다수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2011년 통일교육과정 운영 현황

구분	통일미래지도자	전문강사과정	학교통일교육	공무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합계
인원(명)	36	231	3,128	1,405	1,891	6,691
반수(회)	1	6	53	23	45	128
연인원(명)	7,920	1,584	6,543	5,171	4,401	25,619

\* 연인원(명)은 각 과정 인원의 교육 일수를 합한 값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의 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제6기 교육생 36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역량,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민·관을 이어주는 통합·조정능력, 통일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제1기부터 제6기까지 총 207명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제6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교육생

2010년 4월 20일 개정·발효된 「통일교육 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훈련된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한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통해 2010년 시범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3개 과정에서 84명을 교육하였다.

통일교육 전문과정은 청소년들에게 통일관을 정립시키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눈높이 통일교실 전문과정」,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적실성 있는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과정인 「사회통일교육 전문과정」, 북한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적 북한실상을 교육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강사 전문과정」 등 3개 과정을 진행하였다.

통일교육 전문강사과정 이수현황

(단위 : 명)

연 도	눈높이강사	사회통일교육강사	학교교원	북한이탈주민강사	계
2010년	21	31	51	—	103
2011년	21	37	—	26	84
계	42	68	51	26	187

또한, 2011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내에 재학 중인 한국외대, 서강대, KDI 해외유학생뿐만 아니라, 미국 초·중·고 교장단과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학생 등 재외외국인도 초청하여 통일정책 설명회를 갖고 판문점 등 분단현장도 방문하였다.



한국외대 외국인학생 대상 통일정책 설명회(2011년 5월 20일)

2. 해외순회교육

정부는 매년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 덴마크 코펜하겐, 독일 함부르크 지역을 방문하였다. 또한,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브라질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파라과이 아순시온을 방문하여 각 지역 교민들을 만나 통일정책을 설명하였다.

해외순회교육은 그동안 통일문제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지역 교민들에게 통일정책을 이해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3. 사이버교육

정부는 2003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를 받은 이후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통일교육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2004년부터 30시간(2학점)의 단기과정을 2006년부터 60시간(4학점)의 장기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2011년 상반기에는 변화하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총 17개 과목 53차시의 사이버강좌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였다. 하반기부터 개편된 내용으로 사이버과정을 운영하여 교원 2,295명, 공무원 2,585명 등 총 4,880명이 이수하였다.

2011년 10월 7일에는 「열린 통일 강좌」를 개설하여 그동안 수강대상이 교원, 공무원에게 제한되었던 사이버강좌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였다.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등 ‘통일문제의 이해’ 7개 차시, 북한이해의 관점 등 ‘북한이해 강좌’ 6개 차시 등 총 13개 차시를 제공하였다.



열린 통일 강좌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북한방문 예정자들을 위해 사이버 방북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북안내교육은 사이버방북 교육, 통일교육원 정례교육, 방북예정자들의 요청 시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매일 출경 전 실시하는 영상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2011년도에 방북안내교육을 받은 인원은 총 4,364명이었다.

### 제3절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각종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현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통일교육'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일교육'으로 크게 대별하여 경진대회, 공모, 이벤트,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1. 학교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2010년에 6.25전쟁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평화통일대행진」을 2011년에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내외 청소년 3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 청소년의 통일안보의식을 제고하고 통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동부경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서부경로는 중학생으로 나누어 각각 전방지역 현장체험과 통일리더십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전방지역 현장체험은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 군 부대 병영체험·도보행진, 생애트래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통일리더십 프로그램은 통일 골든벨, 팀별 통일 주제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평화통일대행진」이 끝난 이후에는 참가 소감문 공모전, 행사 기록물 발간, 「평화통일대행진 운영진 캠프」 등 다양한 사후 행사를 개최하였고, 특히 2011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통일미래리더 캠프」에서는 가수 신형원 교수의 통일 강의를 비롯하여 참가자 96명을 통일미래리더로 위촉하기도 하였다.





2011 평화통일대행진

또한, 「청소년 통일 미래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2011년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나흘에 걸쳐 강원도 인제군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개최하였다.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비전 스피치대회, 통일 골든벨, 통일 특강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캠프 중에 을지전망대, 제4땅굴, 편지봉 등을 둘러보며 남북관계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였다.



청소년 통일 미래 글로벌 리더십 캠프

더불어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전문적인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부 직원, 눈높이 통일교육 강사, 북한이탈주민 등이 일일통일교사가 되어 학교를 직접 방문하였다. 2010년에 107개 학교, 2011년에 223개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정 현황

시도명	학 교 명
서울	서울상지초등학교, 전동중학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부산	학진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감천중학교, 명진중학교
대구	대구천내초등학교, 대구일중학교
인천	인천부광초등학교, 인천장도초등학교, 가정여중학교, 연화중학교, 인천논현고등학교
광주	도산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첨단고등학교
대전	대전삼천중학교
울산	동부초등학교, 성안중학교, 대현고등학교
경기	삼죽초등학교, 문산초등학교, 탄현중학교, 풍덕고등학교
강원	화천실내초등학교, 철원장흥초등학교, 임계중학교, 대진중학교
충북	청주서촌초등학교, 이월중학교
충남	온양초등학교, 탕정중학교, 합덕여자고등학교
전북	군산흥남초등학교, 군산서흥중학교
전남	웅치초등학교, 영광여중학교, 완도금일고등학교
경북	영주동부초등학교, 상주화령중학교, 김천상업고등학교
경남	창원용호초등학교, 위천중학교, 김해고등학교
제주	우도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 추자중학교

정부는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0년에 32개 학교, 2011년에 48개 학교로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확대하면서 통일교육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였다.

2011년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6차 전국학생 통일글짓기대회를 진행하였으며, 5,106개 학교에서 63만 3,427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 17일 최초로 통일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통일교육 담당교사 66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통일교육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통일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학생이 남북관계와 통일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통일포럼」을 개최하였다. 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와 협력하여 전국 대학에서 강의, 세미나, 포럼 등을

2010년에 18개 대학교, 2011년 21개 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2011년에는 최초로 경남대학교, 동국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7개 대학교에서 통일환경, 남북관계, 북한실상, 통일 미래비전 및 통일준비 등의 강좌와 현장 체험으로 구성된 5주 과정의 대학생 통일이카데미 개설을 지원하였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를 진행하였다. 2011년은 「통일논문 공모전」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총 52편의 통일논문 공모작 중에서 최우수 1편, 우수 4편, 장려 6편을 선정하였다. 또한,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통일논문 공모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 시상식



2. 사회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통일교육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관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1987년부터 통일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지역사회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 제17기 통일교육위원 1,010명을 2년 임기로 위촉하고, 중앙협의회 및 16개 시·도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통일교육위원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소식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통일교육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10년에는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에서 총 5회의 방문연찬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통일교육위원에서 총 9회의 초청연찬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통일교육위원을 중심으로 그랜드포럼을 두 차례 개최하여 다양한 통일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회장단 워크숍

2004년부터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사회통일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전국에 17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시민강좌, 통일교육 워크숍, 통일문화축제, 통일경진대회, 통일현장체험 등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0년에는 586회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17만 8,540명이 참가하였고, 2011년에는 800회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14만 6,870명이 참가하였다.

2011년 지역통일교육센터별 사업 추진 현황

센터	현황	센터	현황
서울	32회, 5,454명	부산	27회, 7,950명
대구	74회, 28,025명	인천	33회, 5,215명
광주	29회, 3,980명	대전	56회, 11,320명
울산	84회, 9,011명	경기	76회, 14,454명
강원	32회, 2,191명	충북	15회, 1,780명
충남	29회, 6,249명	전북	32회, 4,844명
전남	35회, 6,395명	경북	124회, 20,032명
경북남부	43회, 1,673명	경남	41회, 14,087명
제주	38회, 4,210명	총계	800회, 146,870명

정부는 2002년부터 민간통일교육 단체들의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통일교육협의회에는 65개 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등 통일교육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사례집 등 통일교육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공모를 통해 강연, 포럼, 워크숍, 토



론회, 현장체험학습 등 회원단체의 통일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단체 지원을 통하여 2010년에는 149회에 걸쳐 1만 3,182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143회에 걸쳐 1만 5,552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에게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의 통일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통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각 통일관에 전시물, 영상자료, 특수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에 부산과 경남통일관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통일관의 통일교육 효과를 증가시켰으며, 향후 통일관 리모델링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관 운영 현황

연번	통일관명	위 치	운영주체
1	오두산통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369	통일부* (주)동화진흥 위탁
2	서울통일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35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3	부산통일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4	인천통일관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8-7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5	광주통일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16-11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6	대전통일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대전EXPO과학공원
7	고성통일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31	(주)통일전망대
8	양구통일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622	양구군
9	철원통일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	철원군
10	청주통일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70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11	충남통일관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98	자유총연맹 충남지회
12	경남통일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485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13	제주통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968-2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경남통일관 리모델링 개관식

제4절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정부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이라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해 왔다.

매년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비롯하여 각종 참고자료와 영상자료 등을 발간·제작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기관, 초청 교육생, 일반 국민들에게 지원하였다. 특히, 통일교육 자료의 내용을 객관적·균형적 시각에서 서술하여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북한 동향을 반영하여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 1. 기본교재 발간

정부는 통일 및 대북정책, 남북관계 등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의식을 제고하고 북한 실상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2011년판 기본교재는 국민들이 남북관계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대북관, 안보관 및 국가관,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 및 변화된 통일환경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구체화하고, 2010년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보완하였으며,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비롯한 통일준비 노력 등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편익 및 통일한국의 미래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2010년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북한 이해』는 북한의 이중적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당대표자회 및 3대 권력세습 동향을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6.25전쟁 등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 실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북한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는 화폐개혁 및 장마당 현황, 제도와 현실의 괴리 현상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2011년에는 기본교재의 발간부수를 크게 늘려 전년도 각 4만 5,000부에서 각 12만 5,000부를 발간하여 수요가 많은 교육기관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였다. 처음으로 일선 초등학교 및 군부대에 기본교재를 보급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청소년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1년 12월 기준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강의 교재로 활용하는 대학이 35개에 이르고 있다.



## 2. IPTV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정부는 2010년부터 각 학교에 보급된 IPTV 교육서버를 활용하여 미디어 세대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통일교육 담당교사, 통일교육 전문가, IPTV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IPTV용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2010년에 교과보조용 영상 130편, 재량활동용 영상 42편, 특별기획 프로그램 8편 등 총 180편을 개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교과보조용 영상 47편, 창의적 체험학습활동용 영상 42편, 특별기획 프로그램 15편 등 총 104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였다. 2011년 8월 27일에는 KBS 개그콘서트의 형식을 빌려 통일에 대해 이야기한 '통일콘서트'를 개최하여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학교 IPTV용 통일교육 콘텐츠

2011년 학교 IPTV용 특별기획 프로그램 목록

장르	제목
감성영상	U&I 1편 - 작전명 폭풍 / 2편 - 잃어버린 보물 / 3편 - 통일 상상, 그 날
	통일의 의미
개그콘서트 공연	통일콘서트
다큐멘터리	북한인권을 말하다 - '유리병 속 사람들'
	통일 BIG & BIG 공모전 제작기 '소망을 담다' - 1편 : 통일, 우리에게 답이 있다 - 2편 :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 3편 : 통일한국, 하나 된 미래를 그리다
	통일리포터, 체제전환 국가를 가다 '체코편' / '폴란드편' / '헝가리편'
다큐+드라마	꿈을 지키다
애니메이션	통일 애니 1편 - 아기돼지 삼형제 / 2편 - 피노키오의 통일성 대모험

3.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정부는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서, 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보급하여 왔다.

2003년부터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심층적 해설서인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를 시리즈로 발간해 오고 있다. 2011년까지 발간한 자료는 총 32종에 달하고 있다. 2011년에는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통일필요성의 재인식』,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등 6종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도서관, 유관기관 및 단체, 초·중·고교생 등에 보급하였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또한 2011년에는 통일교육 기본교재 및 통일·북한 관련 도서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남북관계의 주요 용어를 사전 형식으로 정리한 『남북관계지식사전』을 발간하였다. 『남북관계지식사전』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남북회담 및 합의서, 남북 간 사건 및 이슈, 북한의 대남전략 및 도발 등의 용어들을 선정하여 그 유래와 배경, 주요내용과 의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설하여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자료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0년에는 6.25 60주년 기념 평화통일대행진 행사 전반을 소재로 미래 통일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6.25의 교훈과 의미를 깨닫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영상을 구성한 『평화통일대행진 5박 6일간의 기록』 및 『DMZ에서 바라본 분단과 통일』을 제작하여 평화통일대행진 국내외 참가자 전원과 교사들에게 배포하였다.

2011년에는 올바른 대북관 정립 및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는 영상자료들을 개발 및 보급하였다. 『북한의 시장과 주민생활』과 주제강좌 시리즈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등을 영상화하여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나 통일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 9월부터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자를 위해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 내 전자책 전문 사이트(E-Book 서고)를 개설하고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등 2종의 기본교재 및 주제강좌 시리즈에 대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자료의 제공 차원에서 매월 인터넷 잡지인 통일교육원 『웹진(Unizine)』을 발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웹진은 교장·교감·교사 등 정책고객 4만 1,000여 명에게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웹진은 2010년 하반기에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남북관계 주요이슈'(전문가 칼럼), '우리학교 통일교육'(교육사례), '멀티미디어 자료실'(동영상), '독자 이벤트'(제언 공모 및 퀴즈) 등의 코너를 신설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통일교육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2010년 하반기에는 'Unizine 통일카툰 퀴즈', '어린이·청소년 통일다큐 감상문 공모전', 2011년에는 '통일교육 영상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과 '열린 통일 강좌 개설 기념 사이버이벤트'에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하였다.

한편 2011년 말 통일 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를 검색하여 포털기능을 하는 '통일 사이버 라이브러리'(lib.uniedu.go.kr)를 구축하였다. '통일 사이버 라이브러리'는 통일부와 유관기관 웹사이트에서 보유·제공하고 있는 통일교육자료, 정책자료, 북한관련자료, 멀티미디어 등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마당'에 통일교육 자료와 통일문제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탑재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보고 필요 시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자료마당’ 이용자 수는 약 20만 명이었으며, 2011년에는 2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 현황

구 분	제 목
기본교재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학교 IPTV 콘텐츠	교과보조용 영상 47편, 창의적 체험학습활동용 영상 42편, 특별기획 프로그램 15편 등 총 104편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제27권 :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제28권 :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제29권 :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제30권 :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제31권 :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제32권 :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사전형 자료	남북관계 지식 사전
영상자료	북한의 시장과 주민생활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북한 여성의 일상을 만나다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 북한 사람들
기 타	사이버과정 콘텐츠, 홈페이지(청소년 통일배움터) 콘텐츠, 웹진(Unizine), 통일교육원 홍보 브로슈어 등